

'E-클래스' 돌아왔다...강하면서 부드럽게

벤츠 E 300 익스클루시브 시승기

'호불호' 갈렸던 10세대 모델보다 세련미·고급감 더해 제로백 6.1초에 영화 속 우주선 탄 듯...연비는 아쉬워

국내 수입차 시장의 대표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벤츠는 최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올해 첫 차량으로 'E 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E 300 4MATIC AMG' 두 차종을 공개했다.

18일 11세대 벤츠 E 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시승했다. 완전변경된 모델인 데다 E-클래스 라인업 중 가장 인기 있는 차종으로 기대감을 더했다.

제일 상 'E 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최고 출력은 2.0ℓ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가진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kgf/m의 강한 힘을 가졌다.

이날 E 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직접 운전해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에서 출발해 담양 죽녹원을 돌아오는 약 66km를 왕복했다.

운전석에 앉아 엑셀을 밟아보니 제일상 이 차량의 제로백으로 기록된 6.1초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벤츠를 비롯한 대부분 자동차회사는 전기차로의 변모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최근 플러그인 혹은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면서 신형 벤츠 E클래스의 심장은 전 세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실상 세계 최고 자동차 브랜드인 벤츠가 가진 내연기관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었다.

4기통 2.0ℓ에 불과한 엔진에서 260마력에 가까운 힘을 내면서도 엔진 소음과 운전대를 통해 전해져오는 느낌은 부드럽고 정숙했다.



강한 힘에도 고급차량이 주는 부드러운 주행 질감으로 고속은 물론 저속에서도 운전하는 재미를 받았다.

이날은 전날부터 이어진 비로 과감한 엑셀링은 어려웠지만, 순식간에 시속 120km 안팎의 치고 나가는 성능은 차량이 가진 힘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반환점인 담양 죽녹원에 도착해 신형 벤츠 E-클래스의 외관을 살펴봤다.

이번 11세대 벤츠는 직전 모델인 10세대의 후기 모델과 외관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벤츠 10세대는 전기형이 외관 디자인에서 E-클래스가 가진 정체성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면서 후기형에 제자리를 찾아간 면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에서 경쟁사인 BMW에 1위를 빼앗기며 자존심을 구겼던 벤츠의 절치부심은 신형 E-클래스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E 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외관과 내부(왼쪽).

(벤츠 제공)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3개의 수평 트윈 루브를 적용해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좀 더 커진 라이트도 하단 부에 곡선을 더해 중후함과 럭셔리함을 강조했다. 길게 늘어난 후면부 라이트도 하단 부에 곡선이 추가되면서 전 모델보다 세련미가 더해진 느낌을 줬다.

차량 실내에는 벤츠가 추구하는 혁신 가치관이 무엇보다 명확하게 보였다.

우선 운전석 도어부터 조수석 도어까지 감싸는 엠버넌트 라이트는, 전 세대보다 과감하면서도 고급감을 더해 마치 어릴적 보았던 SF 영화의 우주선

에 탄 듯한 느낌을 줬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4.4인치 고해상도 LCD중앙 디스플레이와 MBUX 슈퍼스크린이다. 중앙 디스플레이는 햅틱 피드백 기술이 적용됐고,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었다.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디스플레이와 동승자석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형태로, 탑승객은 차량을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조작하고 싶거나 엔터테인먼트 경험 할 수 있었다.

음성인식도 수준급이었다.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안녕 벤츠"라고 부르니 차량이 반응했

다. 이후 "더워"라고 말하면 온도를 낮추고, "추워"라고 얘기하면 온도를 높여줬다. 또 주위 맛집을 알려달라는 주문에는, T맵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 인근의 맛집 리스트를 나열했다.

음성인식의 경우 조수석 탑승자가 이야기할 경우, 조수석 앞 스크린에 요청한 내용의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연비는 아쉬운 부분이었다. 아무래도 높은 출력을 가진 차량이다 보니, 높은 연비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날 66km를 오가며 리터당 11.2km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車번호판 62년만에 '봉인' 해제... '번호판 차량고정'은 유지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

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산 광안대교 달리고 기부하세요

21일부터 '벤츠 기브앤 레이스' 참가자 접수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 참가자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기부 문화 확산 달리기' 행사로, 지난해까지 총 10년의 행사를 통해 누적 참가자 10만5000여명, 누적 기부금 약 56억여 원을 달성했다.

참가 모집 인원은 총 2만 명으로, 코스는 10km, 8km, 3km 등 3개 부문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참가자는 신청 부문에 따라 백스코 및 광안

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광안대교를 거쳐 중점에 도착하는 등 부산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달리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스포츠 백 및 기능성 티셔츠, 완주를 기념하는 메달 등이 제공되며, 당일 현장에서 행사 종료 후 최고령 및 최연소 참가자 시상, 인기 뮤지션들의 축하공연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으로 전액 기부되며, 참가자들은 원하는 만큼 추가 기부도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배출가스 저감' 4등급 경유차도 폐차 보조금

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

로 4등급 경유 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다.

4등급 경유 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터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올해부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확인 검사는 고장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김민석 기자 mskim@



현대차 WRC 스웨덴 랠리 우승 지난 18일(현지시간) 스웨덴 우메아에서 열린 2024 WRC(World Rally Championship) 2라운드에서 우승한 현대자동차 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4 WRC 스웨덴 랠리에서 우승하며 개막전에 이은 2연속 우승으로 승전보를 이어갔다. <현대차 제공>

피치,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로 상향

'트리플 크라운' 달성 여부 눈길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피치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6일 피치가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A-는 피치 20개 신용등급 중 상위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위험이 크게 낮다는 의미를 가진

다. 현대차·기아가 피치로부터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은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현대차·기아가 무디스로부터 받은 첫 A등급이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2년 5월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획득했고, 피치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하

며 등급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피치로부터 A등급을 받은 주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기아를 포함해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등 7곳에 불과하다.

무디스, 피치와 함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해 현재 신용등급 BBB+에서 A 등급으로의 상향이 예상된다

S&P에서도 등급이 오를 경우 현대차·기아는 무디스, 피치, S&P에서 모두 A 등급을 받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아, IT 등 13개 분야 경력직 채용

기아는 오는 29일까지 경력직 인제 채용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기아는 정보기술(IT) 분야를 비롯한 13개 분야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다.

IT 부문 채용 직주는 ▲IT 개발 ▲IT 관리·기술지원 ▲SW 아키텍트(Architect)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 총 16개다.

기아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현대차그룹 비전 아래 IT 인재를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기아는 IT 부문 외에도 ▲고객경험 ▲제조소류선 ▲구매 ▲품질 ▲생산 등 12개 부문에서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응시지원은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전형(3월 초)을 거쳐 역량검사 및 1차 면접(3월 말), 2차 면접(4월 중) 순이며 채용절

차가 진행된다.

다만 IT 부문은 사전테스트와 코딩테스트가 별도로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올해 상반기 중 입사하게 된다.

기아 관계자는 "IT 부문과 함께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직 채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전략의 과감한 전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